

경산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119개 사업, 1181명 창출



경산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실업자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및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은 꽃길조성, 경로당 재개에 따른 환경정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등 총 119개 사업에 1181명을 선발해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방역지원 사업에 200명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맞게 될 학교 현장의 방역준비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했다.

선발자들의 근로조건은 청년층 및 65세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출근일에 한하여 부대경비 7000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희망일자리사업을 토대로 강력한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백진호 기자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발전에 유일한 마지막 선택”

이철우 도지사 “모든 방안 동원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군위·의성 전방위적 설득... 양 군 합의 이끌어낼 계획
 이 도지사 “범시도민 차원 동참도 필요하다” 간곡 호소

대구시는 지난 7월 '스마트헬스케어'에서 'IoT 기반 헬스케어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증에 착수한데 이어,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의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수단을 이용한 사전준비(안전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가입, 이용자고지 등)와 중소기업벤처부 및 대구시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원활히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먼저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구축'은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의 특례를 적용해 기존 복약 유무에 대한 수작업과 대면 방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채택 의료기기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측정정보(심전도, 혈압, 혈당, 복약정보)를 취득해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하고 복약 알람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피드백 메시지 전송 등 위험 관리 안내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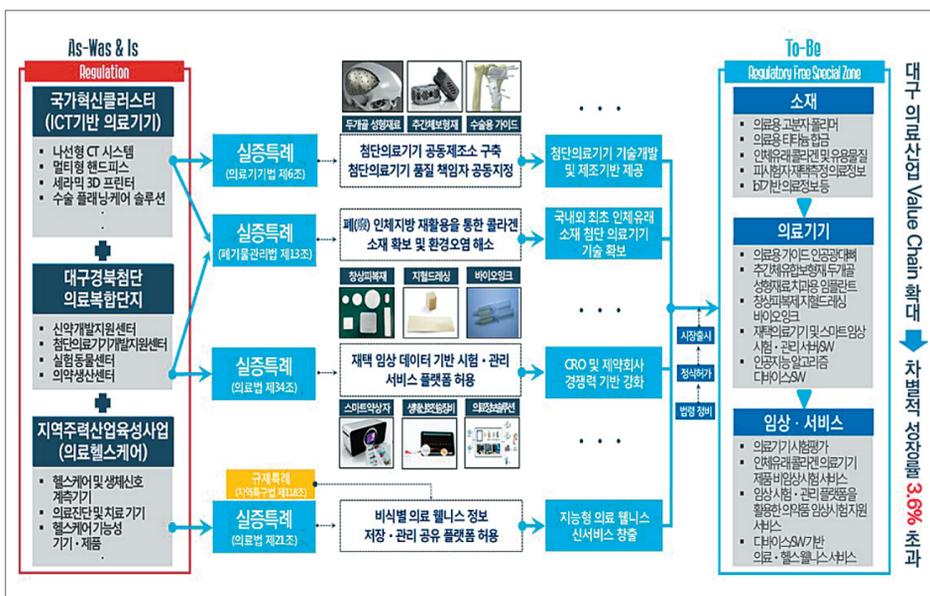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첫 임상시험 대상자의 원격 데이터 획득을 시작으로 총

142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 주관하고, (주)세운 등 5개의 특구사업자와 5개의 협력병원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실증을 통해 임상시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플랫폼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의 기틀을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은 세계 최초로 지방흡입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인크, 창상피복제)을 개발하는 것으로, 8월 31일부터 대구첨복재단이 지방흡입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되도록 되어 있으나 치료효과가 크고 화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되는 폐지방을 재활용할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



규제자유특구 개념도. 사진=대구시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증이 상용화되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로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실증에서는 안전한 의료제품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 연구동에서 획득, 미생물 오염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미감염 여부 확인, 기증자 비식별화 및 추적 시스템 마련,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기술사업화와 공동연구개발로 실증사업의 저변 확대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제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동물유래 콜라겐 대비 면적거부 반

응에 대한 위험도 감소와 우수한 생체적합성, 종교적 관습 국가로의 상용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대한민국이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com

의성군유치 쏘, 통합신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공동위원장 등 5명 식발 감행하며 의지 표명
 의성군수 “신공항 제대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할 것”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성문화회관에서 통합신공항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시환경국장의 통합신공항 추진상황 보고와 류일영 군공항 전문가의 특강, 그리고 주민들의 질의토론 시간이 마련돼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또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동위원장 등 5명이 식발을 감행, “의성군민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시설배치 안은 무효”라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시 재투표나 의성군수·도의원 등의 선출직에 대한 탄핵 및 주민소환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답답하셨을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통합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민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군위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북 국회의원 서명부'에 서명한 김희국 국회의원에 대해 그 배경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이전사업 무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역상생과 백년대계를 위한 꿈을 이어나갈 자신이 있다”며 힘을 모아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을 다짐했다.

의성군의회 배우우 의장은 “앞으로 반드시 군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의성군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등 5명이 식발을 감행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이날 식발식을 감행한 최태림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만 승리하면 모든게 순리대로 될 줄 알았다”며 “그간 무산만은 막기 위해 끝없이 인내했으나 더 이상은 안된다. 대구경북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부터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시호 유치위 대표공동위원장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의성군민들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누구도 상생과 협력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실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진호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대구시, 여성기업인에 '박윤경 대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수범
 KK주식회사 지역발전 공헌



박윤경 대표.

대구시는 제17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수상자로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공헌한 박윤경 KK주식회사 대표이사(63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부회장)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윤경 수상자는 공인된 모범 여성기업인으로 창업 94년, 3대 장수기업인 KK주식회사(舊 경북광우)의 대표이사로 2001년도에 취임해 경제단체를 비롯한 문화·안보단체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의 원칙으로 성실납세와 유동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공헌해 왔으며, 성공적인 여성경제인으로 젊은 여성기업인의 멘토이자, 지역 여성계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특히, 여성 특유의 리더십으로 전통

적 조직문화를 극복하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통해 노사화합 기업의 우수 사례가 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제 시행, 아버지 휴가제 도입, 가족체육대회 개최 등 가족친화적 인간중심의 경영으로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공헌한 박윤경 대표이사(63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부회장)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KK주식회사는 매주 무료급식 지원, 소속 단체의 장학사업 및 집수리 지원 사업 등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도 적극 동참하는 모범 사회공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com

영일만신화의 도시, 다양한 농수축산물들이 사계절 생산되는 곳

포항으로 귀농귀촌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포항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 귀농인 정착지원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 |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구입

-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융자)
- |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융자)